

광명소방서, 광명동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시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체험형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건강한 문화 확산

기사입력시간 : 2024/04/02 [15:42:00]

이강순기자



▲ 광명소방서, 광명동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한국뉴스채널=이강순기자] 광명소방서는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지난해에 이어 2024년 3월 23일부터 광명동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존중으로 심정지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상은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광명시민 및 이용 관광객 누구나이다.

광명소방서 구급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2년 3.4%에서 '23년 9.9%로 향상됨을 보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최초목격자의 초기대응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실습위주 프로그램 및 Q&A 응급처치 교육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등 안심콜 등록·홍보 ▲참여자 및 행인에게 페이스페인팅 행사 ▲1차량 1소화기 배치 및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등 심정지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 향상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으로 체험교육장을 운영한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생명존중과 건강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각종 재난·재해상황에서 초기대응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사회안전 유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느끼면서 이번 체험교육장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